

#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

일 시 : 2019. 12. 18(수) 14:00 ~ 16:00(120')

장 소 :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 (서소문청사 2동 2층)

주 제 :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

토론회 진행 내용

## [주제발표]

○ 구자용 교수(서울시립대학교)

- 주제 :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방안

- 전국적으로 상수도 관로 파손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, 노후 상수도관로가 누적되어 있고 노후화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사고가 커지고 대형화 되고 있는 부분이 문제임.

- 노후 상수도시설에 대한 적시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도시설 관리와 상수도 사고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.

- 상수도 사고 예방, 대비, 대응, 복구 매뉴얼 마련과 체계적인 교육·훈련 수행에 대한 점검이 필요함.

-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함에 따라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채용하여 상수도관망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함.

- 지속적으로 축적된 상수도 관로 진단 결과를 통해 적정 노후관 개량 및 교체율을 산정하고, 적정한 상수도 관로 교체 및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상수도 사업의 재정계획 등과의 연계가 필요함.

- 단·중·장기적 상수도 관망 관리를 통한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,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야함.

## [지정토론]

### ○ **좌장 현인환 명예교수**(단국대학교)

- 올해 발생했던 문래동 수질관련 사고 발생으로 서울시공무원과 의회에서는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서 긴급추경예산을 반영하고 문제의 관로를 교체해 주는 등과 같은 큰 노력을 함.
-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임.
-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높은 관리기준 마련이 필요함.

### ○ **김두일 교수**(단국대학교)

- 서울시의 GNP는 평균보다 높고 이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기대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, 상수도와 관망의 시스템은 그대로임.
- 서울시의 기준이 환경부 기준보다 높아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올 것이고, 그러한 역할을 서울시가 해야 됨.
- 상수도 관망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자료를 디지털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과 인력 확충이 필요함.
- 문래동 적수사태에 대해 걱정을 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.

### ○ **이현동 박사**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
- 상수도관 적수 사태는 노후화된 상수도관이 상당수 존재함에 따라 단순히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큼.
- 평상시 상수도관 관리에 대한 중·장기적 대책 계획과 비상시에는 긴급 대책 메뉴얼을 마련하여 투트랙으로 운영해야 함.
- 기초 데이터가 튼튼해야 함으로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체적인 도면정비와 도형정보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함.
- 관로가 언제 묻혔고, 보수가 언제 되었는지 등을 기록한 이력관리를 해야 함.

계획단수를 정례화해야 하고 계획에 따른 정비를 해야 됨.

- 미래를 대비해서 상수도 관망의 수량, 수질, 수압, 도형정보, 이력관리 등의 통계정보 정비가 필요함.

○ **김성현 상무**((주)도화엔지니어링)

- 정수장에서는 양질의 물이 생산되지만 수송관의 노후화로 인해 수질 불량 사고가 발생함.
- 상수도 관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망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가 필요함.
- 선진단 후개량을 통해 진단 후 상태에 따라 갱생, 보수, 교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을 필요가 있음.
- 관망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서 점검정비가 상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운영과 유지 관리가 따로 진행되어야 함.

○ **이규상 급수부장**(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)

- 서울시의 노후관이 현재 1% 정도 남아있는데, 금년에 일제정비 예산을 받아 남아있는 노후관을 내년까지 마무리 정비할 계획임.
- 관세척에 있어서도 기간제 근로자 40여명이 모든 관을 세척하는 것이 어려워 내년에는 더 많이 근로자를 채용하여 세척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.
- 공법경진대회를 통해 좋은 공법과 세척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.
- 세척, 보수, 갱생, 교체 등 관별 보수 내역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임.
- 현재 '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'을 수립 중에 있는데, 오늘 토론회의 고견을 바탕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

[참석자 질의 및 의견]

○ **유정희 서울시의원**

- 상수도 관망 유지관리 기술에 있어서 물리적 방법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방법 도입 필요성이 있음. 또한 서울시 수돗물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,

관망에서 염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함.

[답변]

○ 김두일 교수(단국대학교)

- 염소제거 관련해서 외국에서도 불만이 많은 부분이지만, 염소 투입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, 최대한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.